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생명보험 상품포트폴리오에 미친 영향

권오경 연구원

여약

■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자산운용대상인 국채유통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상품의 판매증지가 확대되고 있음. 향후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에 민감한 보험상품(일시납종신보험, 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의 판매를 기피하고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정기보험, 의료보험, 종신암보험, 소득보상보험)의 판매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폭이 진전될 경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및 수익모델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중앙은행이 2016년 2월 16일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¹⁾ 생명보험회사의 주요 자산운용 대상인 10년물 국채유통수익률도 마이너스 영역에 진입하였음.

- 마이너스 금리 여파로 ALM²⁾ 전략상 주로 10년물 신규발행 국채유통수익률에 투자하는 생명보험회사의 자금운용수익이 악화되고 있음.
- 일본 중앙은행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마이너스 금리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증지가 확대되고 있음(〈표 1〉 참조)³⁾⁴⁾.

- 2015년 일시납 종신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며 19년만에 생명보험 개인 신계약고가 전년실적을 초과하였으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동 상품의 판매증지 또는 축소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상황임.

1)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예탁한 당좌예금의 일부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인하한 조치로 예탁자에 대해 0.1%의 수수료를 부과하게 됨.
 2) ALM이란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약정한 이자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동일한 만기를 갖는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임.
 3) 有田美津子(2016. 3. 31), 「マイナス金利導入で貯蓄保険の販売停止」 マイナス金利時代の保険への影響は?, 『Hoken Journal』.
 4) 일시납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에 비해 해약환급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면에서 저축성 보험의 성격이 큼.

〈표 1〉 생명보험회사의 판매중지 및 보험료 인상 발표 현황

회사명	대응현황
제일프론티어생명	일시납 종신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의 일부 판매중지
부국생명	일시납 종신보험의 일부 판매중지
태양생명	일시납 연금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중지
T&D파이낸셜생명	일시납 종신보험의 보험료 인상, 판매중지
조일생명	일시납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의 보험료 인상, 판매중지
명치안전생명	일시납 종신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중지, 일부 개인연금 판매중지
간보생명(우체국보험)	배당금 0.07%→0.01%(역대 최저/보험료 일부 인상)
제일생명	일시납 종신보험 예정이율 0.65%→0.45%로 인하
일본생명	엔화 일시납 종신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중지

주: 2016년 4월 말 기준임.

자료: 有田美津子(2016. 3. 31) 및 각사 발표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함.

■ 최근 대형 생명보험 회사의 2/4분기 결산결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음.⁵⁾

- 2/4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일본생명, 명치안전생명, 제일생명, 주우생명은 유가증권 평가손익 및 매매손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고 이 중 2개사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함.
- 상기 영업이익 감소는 엔고에 따른 해외채권의 이자수익 감소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이후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수입보험료 감소에 기인함.

■ 향후 일본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는 마이너스 금리에 민감한 보험상품을 기피하고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 예정이율 인하의 영향이 큰 종신보험, 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거나 판매중지 상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⁶⁾
 - 반면에 정기보험, 의료보험, 종신암보험, 소득보상보험 등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이 적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이 진전될 경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및 수익모델 변화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kiri**

5) 朝日新聞(2016. 8. 10), “大手生保4社 減益 円高で目減り 4-6月期”.

6) Lifull FinTech(2016. 4. 20), “生命保険がピンチ!? マイナス金利が引き起こす値上げラッシュ!?”.